

# “고교 교육과정 개정안 5·18 비중 미흡”

### “독재 몰락 말미 수많은 사건중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

#### 5월단체·기념재단 교육부에 교과서 비중 확대 등 제시

광주 5월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이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예고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내용이 확정되면 학생들은 2020년부터 새 교과서로 공부한다.

5월 단체들은 “개정(안)이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미흡하다고 보고 5·18누락에 따른 관련 내용 삽입, 평가에 따른 교과서 비중 확대 등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고등학교 집필 기준(안)에 대해 한국 현대 민주주의 발전사를 4·19와 6월 민주항쟁으로 나누고 5·18민주화운동은 내용체계에서조차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종합해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5월 단체는 “현 개정안은 5·18민주화운

동을 박정희 유신독재 몰락의 말미에 있었던 많은 사건 중의 하나로 치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6월민주항쟁을 정점으로 한 전국민적 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1980년 5·18을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은 유신독재의 끝이 아닌 반민주 독재세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구체화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서술돼야 한다’, ‘역사적 시기 구분 및 교과서 단원 구분 또한 5·18민주화운동에서 시작해서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지게 해야 역사적 사실과 평가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5·18은 한국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중 유일하게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미래 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이 5·18을 제대로 접할 수 있게 소 주제, 성취기준에 명확하게 제시됐

으면 한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5월 단체는 중학교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개정안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학교 개정안에 대해 “민주주의 발전 단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으로 시작해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으로 정리함으로써 성취 기준에서 밝히고 있는 ‘주권재민과 공화정으로 구현된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 준다”고 평가했다.

5월 단체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는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며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이 땅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려면 5·18민주화운동이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언제까지 검토만... 전두환 재판 또 연기

#### 광주지법 8월 27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재판이 또 연기됐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의 기일변경(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은 8월 27일 오후 2시30분(402호 법정)으로 연기됐다. 전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증거가 방대해 검토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연기신청서를 냈다. 전 전 대통령이 재판 연기신청을 한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앞두고 같은 달 25일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신청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출근길 속치 음주 단속 1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통계청 앞 도로에서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대원들이 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속치음주단속’을 단속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학생부 항목 봉사활동 빠지고 동아리활동 기재 시민정책참여단 권고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항목이 큰 틀에서 현행과 같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소논문 항목은 적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속의 시민정책참여단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놓은 권고안을 12일 발표했다. 참여단은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일반시민 각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두 차례 속의(합숙회의)를 거쳤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

한다. 이번이 첫 정책속의였고 교육부가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권고안에서 큰 틀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참여단은 모든 교과 소논문활동을 학생부에 적지 않는 데 합의했다. 학생의 관심사 등을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사교육 조장 등 폐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 및 학생간 형평성 논란을 부른 수상경력 기재를 두고 참여단은 “기재하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자율동아리 항목은 “현행처럼 적되(동아리) 가입을 제한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만 학생부에 기재하라”고 했다. 봉사활동 실적은 교내·교외활동 모두 적자는 것이 참여단 권고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의 한 항목인 봉사활동 특기사항(500자)은 적지 말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라고 했다. 참여단은 담임교사나 교과교사가 적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지금까지 모든 학생에 대해 기록하지 않고, 재능이나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 기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3000자에서 1700자로 줄이는데는

합의가 이뤄졌다.

진로희망을 삭제하되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관련 내용을 적고 대학에는 제공하지 않는 방안, 고등학생 자격증·인증 취득상황은 적되 대학에 주지 않는 방안 등에도 참여단 의견이 ‘찬성’으로 모였다.

부모정보와 특기사항 삭제 등 인적·학적 사항 통합, 출결사항 중 ‘무단’을 ‘미인정’으로 바꾸는 방안, 누가기록(학년·월별로 계속해 기록되는 사항) 기재·관리방안 교육청에 위임하는 방안 등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8    달뜨기 05:20  
해질 19:48    달짐 19:57

잠 못 드는 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남부	먼바다	동~남동	1.0~2.0	동~남동	1.0~2.0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먼바다(동)	동~남동	1.0~2.0	동~남동	1.0~2.0
	먼바다(서)	동~남동	1.0~1.5	동~남동	0.5~1.0

  

지역	간조		만조	
	시각	수위	시각	수위
목포	07:31	02:10	02:10	07:31
	19:34	14:11	14:11	19:34
여수	02:58	09:02	09:02	02:58
	15:04	21:42	21:42	15:04

  

기간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20(일)
기온	24/34	24/35	24/34	24/33	24/34	24/34	24/34

## 광주시농민회 “광주시 농업예산 늘려야”

광주 농민들이 광주시에 농업예산 확대와 농정개혁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 농민회는 12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예산 등에서 차별받고 있는 광주 농민들을 위해 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농민들과 소통해야한다”고 밝혔다.

농민회에 따르면 광주의 경지면적은 9878ha로, 장성·담양·화순·곡성·구례의 경지면적을 합친 것보다 넓다. 전체 농업 인구는 2만98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광주시 예산 4조5138억원 중 농림분야 예산은 0.9%에 불과한 410억원이다.

농민회는 “시 예산은 지난해보다 11.7% 증가했으나 농림분야는 오히려 16.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광주시 혁신위원회 회가 발표한 255개 세부과제 중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역시 일자리 만들거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해양대생 한 끼 급식비 1666원...재소자보다 적다

#### 해양·수산대 예산 증액 요구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학교 실습선을 타고 국제 항해 실습에 나선 해양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한 끼 급식비가 1666원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 재소자보다 낮게 책정돼 예산 증액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목포해양대 등에 따르면 목포해양대를 비롯해 한국해양대, 부경대, 군산대, 전남대 여수캠퍼스 등 5개 국립 해양·

수산대학교 학생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급식비는 1일 3식 기준 5000원으로, 한 끼 평균 1666원이다. 군인과 전의경·사관학교는 2493원, 경찰대학은 4000원, 소년원생은 1733원으로 책정돼 있다.

박성현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수준에 맞도록 하루빨리 급식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해양대 급식비 증액과 관련하여 13일 2019년 예산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김준서 기자 kjs0533@

## 한결같은 믿음, 좋은 시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스마일장비 2대 운영
- Best Skilled 닥터 선정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1566-9988

##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